혁신 아이디어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

11.1(수) ▶ 11.30(목)

공모주제

공단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 **사회적 가치 실현이란?**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윤리경영, 환경보전, 공정한 기관운영, 지역사회 참여 및 공헌, 인권향상,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들을 고려함으로써 기관과 사회 모두에게 이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

❶ **우리 공단의 사업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창출 방안**
ex) 대한민국 명장 등 다양한 분야 전문인의 현장 노하우 전수

❷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공단이 할 수 있는 신규 사업 및 활동**
ex) 환경 관리 자격증 신설로 전문 인력 양성, 이를 통한 환경 보전 성과 창출

❸ **지역사회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과 그 방안**
ex) 기능경기대회 우승자의 지역 근로자 기술전수

❹ **기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참여대상

만 14세 이상의 국민 누구나

응모방법

신청양식으로 E-mail hrdhsc@hrdkorea.or.kr로 제출
(신청양식 다운로드 :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 소식공간 ➡ 알려드립니다)

포 상

등 급	포상금(원)	인 원	비 고
금 상	1,000,000	1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표창
은 상	500,000	1	
동 상	300,000	2	
장려상	100,000	6	

※ 세부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 소식공간 ➡ 알려드립니다 ➡ "HRD Korea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 안내" 참조

기타 문의 052) **714-8647, 8648**

HRD KOREA

HRD KOREA
2017 November Vol. **257**
webzine.hrdkorea.or.kr









04 **경영진 칼럼** 진정한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능력을 담다

06 **청춘을 만나다** 제44회 아부다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모바일로보틱스 직종 금메달 수상 황주혁·황민형
10 **열정을 만나다** 2017년도 올해의 우수숙련기술인(요리 직종) / 가매일식 대표 안유성
14 **성공을 만나다** 2017 철탑산업훈장 수훈자 / 한화테크윈 마이스터 김일록
18 **희망을 만나다** 2017년도 일학습병행제 우수사례 경진대회 기업부문 대상 ㈜삼천
22 **FOCUS ON** 제44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30 **ZOOM IN HRD** 미래일자리 UCC 공모전

일터를 JOB다

32 **스펙보다 스토리로** 주변에서 중심으로,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
34 **편견없는 채용, 그것이 알고 싶다** '꼼꼼히 채용'으로 바라보는 실력이 인정받는 사회
36 **해외취업, 어디까지 알고 있니?** 한류로 빛나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야경
38 **부탁해, 직방!** IT의 핵심, AR/VR 직무관련 이야기

희망을 품다

40 **미디어 속 직업 탐방** 설렘과 낭만으로 인도하는 안내자, 여행 가이드
42 **직장인 공감 칼럼** 식사하셨어요? 직장인 점심시간 활용법
44 **길 따라 바람 따라** 충남 아산시 곡교천변 은행나무길에서 공세리 성당까지

HRD 특파원

48 **오! 나의 멘토, 오! 나의 멘티** 한 판 놀아볼까요?
52 **똑똑, 거기 뭐해요?** 달려라, 세상 끝까지
54 **청렴韓세상** 사회적 자본인 신뢰의 중요성
56 **HRD KOREA News**
58 **독자의 소리**

2017년 11월호(통권 257호) www.hrdkorea.or.kr

발행일 2017년 11월 1일 **발행인** 박순환 **편집인** 권오직 **등록번호** 울산 라-01054 **등록일자** 1982년 9월 29일
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홍보실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교동) **전화** 052.714.8191 **팩스** 052.714.8200
제작 효민디앤피 **디자인** 백현진 **취재** 최명신 신유경 전은영 김영은 제수빈 김보은 오남경 **사진** 김재경 권순일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02번길 17 **전화** 051.807.5100 www.hyomindnp.co.kr
-
월간「HRD KOREA」는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외국인고용지원, 해외취업, 숙련기술장려 및 기능경기 등 국가인적자원개발(HRD)사업에 대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매월 제작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게재된 외부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영진 칼럼

진정한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글 **박순환**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이승엽은 야구선수다. 그냥 야구선수가 아니라 국가를 상징하는 국민타자다. 국민이라는 수식어가 남발되고 있는 세상이지만 '국민타자 이승엽'이라는 칭호에 대해 이론을 제기할 야구팬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이승엽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말이 '진정한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이다. 노력한 만큼 대가는 반드시 따른다는 것이다. 자신이 그것을 증명해왔다. 홈런왕이 되었을 때도, 아시아 홈런신기록을 작성했을 때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을 땄을 때도, 이승엽은 배신하지 않는 진정한 노력의 위대함을 보여줬다.

일등이라는 수성의 위치에서 자만하지 않고 변화와 쇄신을 거듭해왔다. 국민타자라는 명예가 이승엽 선수에게 붙게 된 결정적 원인 가운데 하나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일등의 위치, 수성의 자리에서는 변신을 시도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승엽 선수는 단호하게 이를 거부했다. 끊임없이 채찍질했다. 쇠가 더 단단해지기 위해 담금질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진정한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승엽 선수를 비롯한 스포츠만의 영역은 아니다. 누구나 다 해당되는 일이다. 특히 기능인들에게 노력은 필수 항목이다. 기능은 이미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단련하고 가꾸어 나가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숙련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면 노력은 기능인의 어머니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경제강국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도 기능인들의 노력과 정성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독창적인 제품이라도 그 기술과 제품을 능수능란하게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인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기능인을 산업역군 또는 산업전사라고 칭하는 것이다. 산업역군과 산업전사가 없다면 치열한 경제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 기술과 제품으로 전투에서는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기능인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지렛대 역할을 해온 것이 바로 국제기능올림픽이다. 2년에 한번 격년으로 치러지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말 그대로 전 세계 기능인들의 전쟁터다.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던 1967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16회 국제기능올림픽에 우리나라는 처음 출전했다. 신발과 섬유 등 경공업을 중심으로 선수단을 꾸렸던 첫 번째 출전에서 종합 순위 6위라는 쾌거를 달성하며 단숨에 세계 기능인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10년 뒤 1977년 네덜란드에서 치러진 제23회 대회에서 사상 첫 종합우승의 영예를 차지했다. 명실공히 기능한국의 위상을 만방에 떨쳤다. 이후 지금껏 2차례 준우승을 포함해 19차례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승을 목표로 장도에 올랐다. 그러나 아쉽게도 스무 번째 우승은 다음 대회로 미루게 됐다. 우리나라 선수들의 기능실력은 변함이 없었지만 중국을 비롯한 신흥 기능강국들의 도전은 거셌다. 우리나라가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그리고 첨단산업으로 산업환경이 바뀌면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자동차와 기계 등의 분야에서 중국에 밀렸다. 중국이 압도적인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은 기능굴기를 외치며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투자와 성적이 비례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우리도 과거의 성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보다 더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도 기능한국의 위상을 더 높이도록 혼신을 다할 것이다. 필자와 이번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선수단은 우승보다 값진, 준우승보다 더 값진, 진정한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확인했다. 그 믿음이 씨앗이 되어 2년 뒤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에서 20번째 우승이라는 결실을 거둘 것으로 확신한다. HRD



다섯 배 빛나는 금메달 황민형(위)·황주혁(아래)

제44회 아부다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모바일로보틱스 직종 금메달 수상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최고득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들 긴장하고 계십시오."
당차게 선언했던 막내들이 기어이 가슴에 메달을 걸고 귀국했다.
모바일로보틱스 직종 금메달로 2009년 이후 5연패라는 값진 쾌거를 달성한 황주혁·황민형 선수이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모바일로보틱스 직종 5연패

지난 19일 제44회 아부다비 국제기능올림픽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그중 모바일로보틱스 직종 5연패 신화를 이어가며 다시 한 번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을 세계에 알린 이들이 있다. 바로 황주혁·황민형 선수이다.

황주혁 단상에 올라갈 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분이 좋았어요. 노력한 결과를 받는다고 생각했죠. 민형이랑 서로 잘했다고 축하하고, 기쁜 만큼 크게 소리도 질렀습니다.

황민형 준비하는 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좋은 결과를 얻게 돼 기쁩니다. 그동안 걱정해주신 어머니, 공용선 국제심사위원님, 응원해준 친구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모바일로보틱스는 2인이 한 팀이 되어 모바일 로봇의 기계시스템을 조립, 운영하고 로봇의 움직임을 프로그래밍하는 직종이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는 총 4일에 걸쳐 4개의 과제로 평가한다. 첫째 날 로봇조립 및 설명서 평가, 둘째 날 로봇기본동작 및 과제부분 평가, 셋째 날 자율주행 평가, 넷째 날 선수 조종 주행 평가의 과정이다. 두 사람은 이중에서도 특히 마지막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로봇이 10분 안에 그리드 패턴에 적합한 당구공 8개를 배송하는지 세 차례에 걸쳐 평가했는데, 세 번 모두 8개 당구공을 제대로 배송한 것이다.

황주혁 결과는 좋았지만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로봇에 달린 카메라 렌즈로 당구공을 찾아야 하는데, 대회장 안에서 다들 같은 주파수를 이용하다 보니 화면에 노이즈가 너무 많아 색이나 무늬 구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황민형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도 했고 조명이 너무 밝아 카메라를 제어하기가 여러모로 힘들었어요. 하지만 모든 선수들이 동일한 상황이라 생각하고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과제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번 아쉬운 상황과 마주했지만 두 사람은 침착하게 대응했다. 착실하게 훈련한 시간의 힘을 믿은 것이다. 결국 앞서 좋은 결과를 냈던 선배들의 기운을 받아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다.

힘든 훈련기간을 버틴 원동력은 믿음

두 선수가 모바일로보틱스를 배우기 시작한 이유는 오래 품어 온 꿈에 한 발자국 다가가기 위함이었다. 동시에 다가올 미래를 한 발 앞서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도 한몫했다.

황주혁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막연하게 꿈꾸다가 경남공업고등학교에 들어와서 모바일로보틱스를 만났습니다. 이 직종의 매력은 로봇이 제가 한 프로그래밍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산업분야인 만큼 로봇과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이해가 최우선이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 두 명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파트너십이다. 국제대회라는 새롭고 가변적인 환경에서 금메달을 수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오랜 시간 함께하며 다져 온 믿음에 있다.

황민형 각자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해내려는 성격이 닮았어요. 목표로 한 최고득점을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의지도 두 사람 몫이니 남들보다 강했던 것 같아요.

동행이 있다는 든든함은 어떤 힘든 여정도 견디게 했다. 결실도 차곡차곡 쌓였다. 2016년 부산광역시 지방기능경기대회 은메달을 시작으로 2016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은메달 수상, 11월 국가대표선수 선발까지 단숨에 이어졌다. 그리고 지난 201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만을 바라보고 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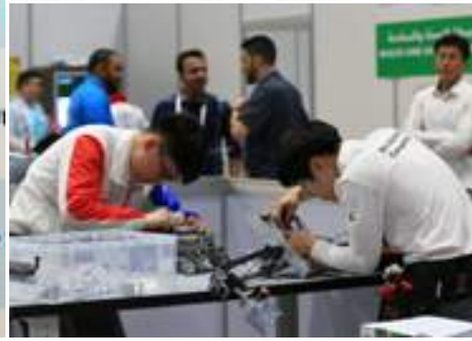
황주혁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국제대회는 국내대회와 로봇조립방법, 프로그램언어, 평가방식까지 다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국내대회에서는 C언어를 사용하는데 국제대회에서는 랩뷰를 사용하는 식입니다.

황민형 연패를 이어가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어요. 당연히 잘 하겠지, 라는 시선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오히려 더 '그래, 우리가 무조건 금메달이야'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8시부터 새벽 2~3시까지 잠을 줄여가며 훈련에 임했지만 시간이 부족했다. 그럴 때일수록 서로를 다독였다. 그 마음이 쌓여 금메달로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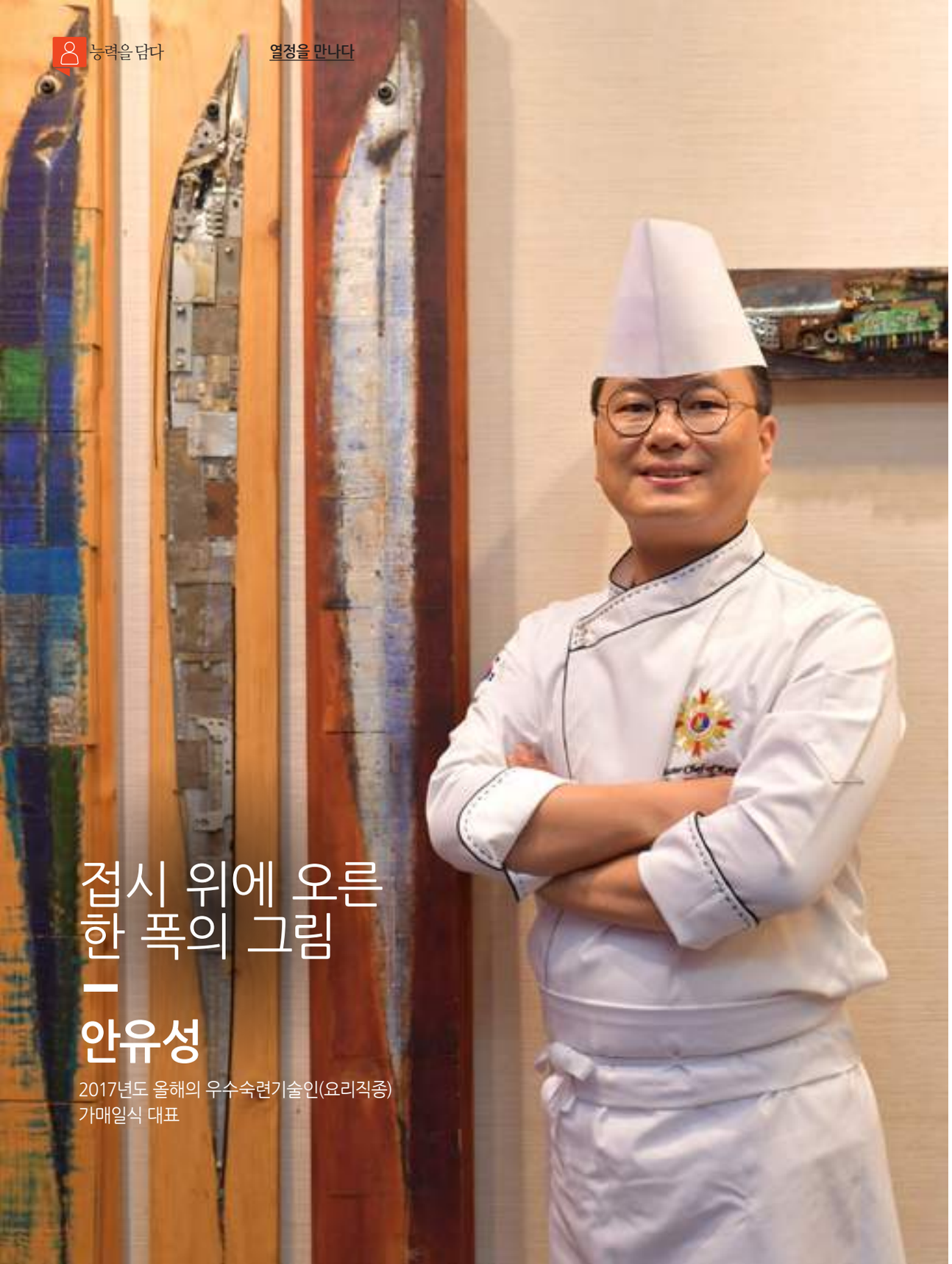
대한민국 미래의 시작

모바일로보틱스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로봇이나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분야이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 수상한 이번 금메달은 미래 산업에 대한 우리나라 기술력을 증명한 계기가 되어 의미가 깊다. 또한, 이제 막 첫 발을 내민 두 선수의 미래를 환하게 밝혀주는 힘이기도 하다. 금메달을 시작으로 두 사람은 메달보다 더 밝게 빛나는 다음을 기약하고 있다.

황주혁 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현장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동시에 야간대학을 다니면서 이론과 실무를 탄탄하게 다질 생각이에요. 그걸 기반으로 앞으로 모바일로보틱스 직종의 후배들의 훈련을 지원하고 대회에서 겪을 시행착오들을 덜 수 있게 돕고 싶어요.

황민형 당장은 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특히 기계전기 분야에도 관심이 많아 메카트로닉스 등 다른 기술을 배워서 가능성을 넓히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의 기술발전은 물론 다음에 올 후배들에게도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5회 연속 금메달로 대한민국 로봇 기술력의 진보를 전 세계에 입증한 황주혁·황민형 선수.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도 이들이 있어서 든든하다. HRD



접시 위에 오른 한 폭의 그림

안유성

2017년도 올해의 우수숙련기술인(요리직종)
가매일식 대표

밥을 쥐어 고추냉이를 바르고 부드러운 생선살을 올리는 손짓이 마치 춤을 추는 듯하다.
밥의 양은 정확하게 14g(점심용) 혹은 12g(저녁용). 유려한 손놀림이 지나가면
다채로운 색으로 빛나는 그림 같은 초밥 한 접시가 완성된다.
일필휘지로 순식간에 그린 것 같지만 그 뒤에 30여 년의 세월이 있다.
2017년도 우수숙련기술인 중 유일하게 요리 직종에 이름을 올린 안유성 가매일식 대표의 이야기이다.

우수숙련기술인, 꿈을 이루어 줄 날개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에 위치한 가매일식은 평일 점심시간에도 만석이다. 맛있다는 소문 덕에 멀리서도 찾아오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 명성처럼 가게 입구에는 각종 요리대회 수상 상장,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유명 인사들의 방문 후기들이 가득하다. 여기에 최근 한 가지가 더 추가됐다. 안유성 대표가 2017년도 올해의 우수숙련기술인으로 선정된 것이다. 올해 요리 직종으로는 유일할 뿐 아니라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최초이다.

"요리를 시작한 지 28년째 큰 상을 받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요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능장만 되어도 '요리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거든요. 그런데 '준명장'으로 불리는 우수숙련기술인이라니, 정말 영광입니다. 꿈을 이뤄나가는 길에 날개가 되어줄 것 같아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수숙련기술인 제도는 각 분야에서 7년 이상 업무에 종사한 숙련기술인을 선정하고 지원하여 기술 개발을 독려하는 사업이다. 안 대표는 우수한 기술과 함께 그간 기능장·기능사·산업기사 등 출제위원으로 활동하며 기술인들의 기술향상에 이바지한 경력을 인정받았다. 그가 지금과 같은 요리 직종 우수숙련기술인으로 선정되기까지에는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고향인 전남 나주에서 갈빗집을 하던 어머니 덕에 요리와 가까이 하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어머니의 식당을 오가면서, 만든 음식을 고객이 맛있게 먹어줄 때의 즐거움을 미리 배웠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요리사를 꿈꾸다가, 일식 분야 전망이 좋다는 어머니 말씀에 일식을 택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직후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한 일식 가게에서 '냄비닦이'로 시작했다. 장사가 잘 되는 곳이라 하루에 매운탕 그릇 4~500개씩을 닦아야 했다. 설거지에 익숙해질 때쯤 '야채다이'라고 말하는 야채 손질을 시작했고, 그렇게 5년 여가 지난 뒤에야 초밥을 쥐어볼 수 있었다. 장사가 끝난 후 남은 밥에 무를 납작하게 잘라 생선 대신 얹는게 고작이었지만 밥을 쥘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안 대표는 원 없이 연습했다.

남도초밥, 초밥에 더한 지역의 맛

긴 시간을 들여 드디어 초밥을 직접 만들 수 있게 됐지만 안 대표의 갈증은 가시지 않았다. 더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마음에 1996년 초밥의 본고장인 일본으로 향했다. 주방 일을 병행하며 다닌 니가타 요리학교에서 단기과정으로 일본의 스시와 문화를 함께 배웠다. 실력 향상 외에도 이 시기가 그에게 특히 더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일본 초밥에는 다양한 재료들이 올라갑니다. 새조개, 피조개 등 조개류를 고급 재료로 치는 게 인상 깊었어요. 제 고향 남도의 서남해안 갯벌에서 많이 잡히는 재료들인데도 당시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거든요. 고향 재료를 이용해 남도식 초밥을 만들어보자는 영감을 처음 받게 되었어요."

초밥에 남도의 맛을 더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마음속에 품은 채, 그는 2002년 광주에 지금의 '가매일식'을 차렸다. 방 4개, 총 8개 좌석이 있는 작은 가게였다. 지금은 큰 도로도 나고 주변 상권도 많이 발달했지만 당시엔 허허벌판에 불과했다. 그런 위치 탓에 초반에는 주위에서 걱정도 많이 했다.

하지만 그는 성실과 정직을 무기로 꾸준히 정진했다. 그 덕에 쌓인 '이 집에선 믿고 먹을 수 있다'는 고객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금은 약 200평까지 가게 규모를 키웠다. 그 비결은 다름아닌 '맛'. 재료를 손질하고, 밥을 짓고, 식초를 배합하는 등 하나의 초밥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각 기술들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해왔다.

"저희 집 초밥은 밥이 까맣습니다. 김치의 신맛에 흑초를 배합한 발효식초를 더해서 만드는데요, 간이 잘 배어 있어 감칠맛이 돕니다. 새로운 초밥도 꾸준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일본을 오가며 트렌드를 읽고 신제품에 대한 힌트를 얻어요. 조린 백합초밥을 보고 벌교 참꼬막 초밥을 떠올리는 식입니다."

이 외에도 안 대표는 남도의 맛이 물씬 느껴지는 나주 생고기, 묵은 김치, 갑오징어 등을 이용한 초밥 등을 만들었다. 남도를 대표할 게미진[1] 맛을 내기 위해 새로운 재료를 조합하며 노력한 정성이 그만의 기술로 차곡차곡 쌓였다.

1) 전라도말로 감칠맛이 나고 맛있다는 뜻







꿈, 함께하는 미래

초밥만을 바라보며 달려온 덕에 우수숙련기술인이라는 꿈을 이룬 안 대표는 요즘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다. 광주 동구 아시아문화전당 앞길을 따라 '아시아 음식의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과 지역을 대표할 요릿집을 찾는 '게미맛집'을 선정하는 일이다.

"제가 할 수 있는 요리를 통해 광주를 비롯한 남도지역을 활성화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요리에 저희 지역 특색을 담아 소개한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전문분야인 초밥뿐만 아니라 지역을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맛이 더해지면 말이지요."

그래서 그는 생활의 달인, 스타킹 등 각종 방송 출연도 마다하지 않았다. 현재는 광주지역방송인 KBC의 'TV블로그-꼼지락' 프로그램에 매주 수요일마다 출연해 지역 맛집 소개나 다양한 요리와 그 맛에 대한 코멘트를 하고 있다. 남도의 맛을 알리기 위한 과정이다.

동시에 그는 요리를 꿈꾸는 청년들이 오너 셰프로서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에도 관심이 많다. 그 때문에 가매일식에는 현재 두 명의 일학습병행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현장에서 요리를 배우며 학업을 병행했던 자신과 같이, 기술과 이론은 물론 요리사이자 한 가게 주인으로서 책임 의식까지 습득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안 대표가 택한 방법이다.

"최종적으로는 평생교육원 형태의 교육기관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바탕으로 기술과 이론은 물론이고 사업을 해나가는 경영 능력까지 배울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어요. 그 친구들이 자라나 또 다른 후임 양성에 힘쓰고, 그러다 보면 점차 발전해 나가겠지요."

초밥 위에 묵묵히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 온 안유성 대표. 이제는 지역과 지역의 맛, 함께하는 이들까지, 모두를 그려내기 위한 더 큰 접시를 꺼내야 할 때가 왔다. HRD

스승이 된다는 것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이다. 풍부한 경험은 물론이고 철저한 자기관리가 뒷받침되어야만 누군가를 가르칠 자격을 가질 수 있다. 2017 철탑산업훈장의 주인공 김일록 씨는 이러한 '스승'이다. 산업현장에서의 경험과 주경야독의 노력으로, 그는 현재 우리나라 용접 기술의 명맥을 이어나갈 후학 양성의 중심에 서 있다.

대한민국 기술의 앞날을 잇는 스승

김일록

2017 철탑산업훈장 수훈자
한화테크윈 마이스터

교육으로 실현하는 상생 가치

용접은 우리나라 뿌리 산업 중 하나인 조선업 발전의 기틀이다. 선체의 매끄러운 표면은 사실상 수천, 수만 개의 철판을 덧댄 것이다. 이 철판을 연결하는 것이 용접기술인들의 역할이다. 김일록 씨는 바로 그런 용접기술인 중의 한 명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38년간 용접기를 잡아온 우리나라 용접 분야 최고 장인이다.

회사에서 그의 직함은 '마이스터(Meister)'다. 라틴어의 '스승'이란 말에 어원을 두고 있으며 '장인' 내지 '명장'을 뜻한다. 마이스터는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자로서 후학 양성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업무를 맡는다. 20년 이상의 현장 근무 경험, 기감(차장급) 직급 이상, 기능장 자격증 보유, 명장 선정 등 까다로운 자격 조건을 갖춰야만 마이스터가 될 수 있다.

"하루에 4~8시간씩 마이스터 기술교육센터에서 부서 배치를 받은 신입사원들에게 이론과 실기 교육과정을 실시합니다. 내열기초합금인 인코넬, 코발트 합금 외 티타늄 등 소재별 용접 사내자격증을 최소 3종류 이상 취득하는 수준까지 가르쳐 실무에 내보내지요."

재직기간 동안 그렇게 배출해낸 후배 기능장만 65명. 여기서 그치지 않고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에 출강을 나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협력 중소업체에 기술지원을 나간다. 경남자원봉사센터와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리어카 만들기 봉사활동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 그는 자신의 기술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재능을 기부하고 사회에 환원한다. 그에게 교육이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김일록 마이스터 **약력**

- 1996 용접기능장
- 1997 판금제관기능장
- 1998 배관기능장
- 2000 신지식인
- 2006 창원시 최고 근로인상
- 2007 대한민국명장(용접)
- 2015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 2015 노동부장관표창
- 2017 철탑산업훈장

‘용접=양심’이란 사명감으로

한화테크윈은 국내 유일의 항공기 엔진 제작 기업이다. 한화테크윈이 가진 항공 분야 기술력은 국가 기술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전까지 항공 산업의 용접 기술은 해외에 의존해왔기 때문이다. 독자적인 기술력을 구축할 수 있었던 데는 그와 같은 숙련기술인들이 꾸준히 기술을 연마하고 후배들에게 전수해온 역할이 크다.

“항공 산업은 기술집약 산업이라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항공기 엔진 창 정비(Depot Maintenance)부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 착실히 기술력을 쌓아와 항공기 엔진 부품을 만들고 치공구[1]를 개발하는 등 자체 기술만으로 모든 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거죠.”

항공기는 엔진에 상당한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용접 공정에서 한 치의 결함도 허락되지 않는다. 만에 하나 크랙이 발생할 경우 비행 시 그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스트레스가 가해져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용접 기술의 핵심은 안전이다. 그만큼 사명감이 필수란 이야기다.

“용접은 안전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후학들에게 ‘용접은 양심’이라고 가르칩니다. 용접 도중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발견 즉시 잘못된 부분을 파내고 다시 용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용접 기술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에요.”

한화테크윈에서 주로 실시하는 용접은 TIG 용접이라는 항공기엔진 정밀용접이다. 잘 된 용접은 비드(Bead) 모양이 균일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빛깔을 띤다. 그래서 용접기술자들은 용접을 하나의 예술이자 작품 활동으로 여긴다. 안전을 지킨 용접이 아름다움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가장 안전한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선한 이치가 용접기술인들의 손끝에서 녹아난다.

1) 어떤 물건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공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무한불성, 무인불승의 성공

김일록 씨를 최고의 명장으로 만든 비결은 끊임없는 자기관리. 이론지식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36세에 한국폴리텍대학에 들어가 수학했다. 이후 3년 만에 용접기능장, 배관기능장, 판금기능장 3개 기능장을 비롯해 용접기술사까지, 용접 부문 전 종목 자격증을 취득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여기서 끝내지 않고 공학사 학위, 창원대 대학원 석사 학위까지 받았다. 이 모든 것은 낮에는 현장에서 근무하고 밤에는 야간대학에서 공부하는 주경야독으로 거둔 결실이다.

그의 좌우명은 무한불성, 무인불승(無汗不成 無忍不勝)이다. ‘땀 흘리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고, 인내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뜻이다. 꾸준히 노력해서 목표를 이룬 장본인으로서 후배들에게 공부에 ‘습관’을 들일 것을 강조한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젊은이들이 당장의 결과만 보고 성공을 판가름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한다.

“기술직에 대한 편견이 아직 남아있는데, 자기가 좋아하고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노력하면 충분히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조금씩 실력중심사회로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나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와 같은 명장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직업교육훈련을 할 때 젊은이들에게 꿈, 열정, 도전, 실행 네 단계가 맞물려 목표를 달성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가르친다는 김일록 씨. 그렇게 그는 개인경쟁력을 회사경쟁력으로 만들고, 그것을 국가경쟁력까지 연결시켰다. 철탑산업훈장을 후학 양성과 기술 전수에 더 힘쓰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 김일록씨와 같은 훌륭한 스승이 있기에 우리나라 미래 기술 발전의 탄탄대로가 보인다. HRD

미래를 내다보고 사람에 투자하다

㈜삼천

2017년도 일학습병행제 우수사례 경진대회 기업부문 대상

WIN-WIN HRD KOREA!
㈜삼천은 어떤 기업?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힘쓰는 반도체 부품/소재 산업 선도기업.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최고의 기술과 품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일학습병행제

신입사원의 실무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 수지나 인프라 부족 등으로
장기적인 인재 양성에 선뜻 나서기 힘들다.
일학습병행제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혁신을 이루어냈다는 ㈜삼천.
이들이 일학습병행제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공감대 형성과 사내문화 개선부터

이직률을 낮추고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등 내부적인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사내교육을 시작한 ㈜삼천은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에 사원 교육을 보내던 중 일학습병행제를 알게 됐다. 기존의 자체 교육에 일학습병행제를 더하니 회사 실정에 맞는 인재를 더욱 효율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의 필요성을 한 사람만 인식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CEO를 비롯해 모든 구성원들의 의지가 하나로 모여야 하죠. 사내 분위기를 바꾸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일학습병행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시 퇴근을 하라고 했더니 서로 눈치를 보며 퇴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쭉 살아왔기 때문이죠."

기존에 관행처럼 이어오던 문화를 바꿔야 일학습병행제의 안착, 더 나아가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신념으로 지나치게 일 중심으로 돌아가던 분위기부터 개선하고자 했다. 학습근로자 교육은 반드시 정규 근무 중에만 실시했고 단합을 위한 회식이나 야유회 역시 주중 근무시간에 진행했다. 일과 가사 병행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직원의 경우 30분 단축 근무를 시행했다. 사원들이 당연한 권리를 당당히 누리며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쓴 것이다.

보람을 느끼며 즐겁게 일하니 업무 성과가 오르고 애사심 또한 고취되었다. 신입 학습근로자들의 역량은 빠르게 상승했고 그에 따라 자연스레 품질 문제 해결능력도 향상되었다. 그 결과 2016년 11월부터 불량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거기다 주간 평균 조업시간은 44% 감소한 반면, 월 평균 생산량은 25% 증가했다. ㈜삼천이 일구어낸 변화는 주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인근의 다른 회사들도 기업문화에 대한 개선과 일학습병행제 시행에 대한 의지를 가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장기적 안목으로 운영하는 일학습병행제

㈜삼천의 인재 선발 과정은 서류 심사와 면접으로 구성된 일반적인 채용 방식과는 조금 다르다. 구직자가 회사의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인사담당자가 직접 특성화고등학교나 폴리텍대학을 방문해 대상 학생들을 만나보는 것이다. 그중에서 회사에 걸맞을 만한 후보생을 골라 지속적으로 눈여겨본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학생의 경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뒤 졸업 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한다. 채용 뒤에도 6개월간은 현장에 투입하지 않고 견학만 하게 하는데, 생산성은 잠시 미뤄두고 경험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고심해서 채용한 인재에 대한 믿음 하나로 교육부터 심혈을 기울인다.

"불량품이 발생하더라도 이미 일어나버린 일에 대해서는 탓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스스로 개선 의지를 가지고 향후 대책을 세워나가게끔 유도하죠. 무슨 일이든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기술 교육뿐 아니라 인성 교육에도 중점을 둔다. 회사를 키워나가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은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입사원은 ㈜삼천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바탕으로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자발적으로 느끼게 된다.

그렇게 ㈜삼천은 일학습병행제 출신의 젊은 사원들이 현장을 리드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거듭났다. 20년 동안 쌓아온 기술력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CAD 도면 360여 종을 규격화하는 데 학습근로자들이 직접 기여하기도 했다. 함께 회사의 기술력을 응집하고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학습근로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일학습병행제의 존립 이유를 모범처럼 실천하고 있다.

인재 교육을 통한 미래 산업 선도

사내 교육 총괄이자 기업현장교사인 조대훈 부사장은 일학습병행제를 시행함으로써 회사가 '행복해졌다'고 표현한다. 학습근로자들이 교육을 통해 성장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되면서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 또한 확고해졌기 때문이다. ㈜삼천은 현재 주력 분야인 반도체 부품/소재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로봇 분야로의 사업 확장을 겨냥하고 있다. 국가 방위산업체 선정 역시 목표 중 하나다.

이러한 꿈을 실현하고자 ㈜삼천은 기술력 보강에 더욱 힘을 실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개편·확장하고, 연구비 예산도 더 늘렸다. 여기에 일학습병행제를 거친 학습근로자들이 연구원으로 활약할 예정이라고. 의지를 다지기 위해 지난 9월 28일에는 벤처기업 등록 인증도 받았다.

"벤처기업 등록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예요. 안정을 추구하기보다는 도전정신을 갖자는 의도죠. 벤처기업하면 '혁신'이잖아요. 혁신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고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구성원들과의 결속력을 다져, 계속해서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해나가고자 합니다."

㈜삼천은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데 거리낌이 없고, 가르쳐주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는 정직한 협치 체계가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는 힘의 중추임을 강조한다.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고 인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 신념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삼천은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발 빠르게 뛰고 있다. 이들에게서 진정한 실력중심사회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룩되는 것임을 배운다. HRD





대한민국 기술이 펼쳐진 그 찬란한 현장

worldskills Korea

제44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제44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마친 국가대표선수단이 한국으로 돌아왔다.
두근두근하고 열렬했던 지난 시간들.
당신이 미처 챙기지 못했던 국제기능올림픽 구석구석의 현장을 모두 담았다.





기술강국 대한민국 종합 2위 달성

지난 10월 23일 인천국제공항에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다. 제44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마치고 귀국한 국가대표선수단을 환영하기 위한 행사가 열린 것.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개최된 제44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국가대표선수단은 57개 참가국 중 WSI 공식발표 5개 지표를 점수화한 결과 종합 2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42개 직종에 46명의 대표선수들이 출전한 우리나라는 금 8개, 은 8개, 동 8개, 우수상 16개를 획득했다.

환영행사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종합 2위를 거둔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우리나라 기술인력의 우수성과 기술강국의 면모를 세계에 각인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고도성장을 이룩하는 데 기술인들이 크게 기여했으며, 지금도 우리나라 발전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라며, "선수단이 쌓아온 기술과 경험 역시 앞으로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혁신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선수단을 격려했다.

세계로 날아오른 기술강국 코리아

종합순위는 평균점수, 평균메달 점수, 총메달점수, 참가선수 총점수, 우수선수비율 5개 항목에서 점수를 산정해 매겨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점수와 우수선수비율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총 환산점수 279점을 얻어 281점을 획득한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번 결과는 기술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다졌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7년 제16회 스페인대회 참가를 시작으로 29회 출전하여 19번의 종합우승을 거뒀다. 특히 2015년 제43회 브라질대회까지 5연패를 이어감으로써 전 세계에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알려왔다. 정부는 체육올림픽 수준과 동일하게 기능올림픽 금, 은, 동메달 수상자에게 각각 6,720만원, 5,600만원, 3,920만원의 상금 및 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자격시험 면제, 병역대체복무(산업기능요원 편입), 동일분야 종사 시 매년 계속종사장려금(입상 후 동일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할 경우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올 하반기에는 국제대회 경향을 분석하여 새로운 훈련방식과 선수 선발방식 등을 통해 선수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기능인력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기술이 펼쳐진 찬란한 시간들.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더듬어봤다.



국제기능올림픽 6일의 기억

올림픽의 시작, 개회식

무더운 기운이 사라지고 선선한 바람이 느껴질 즈음 그 날이 다가왔다. 완연한 가을 날씨를 선보이는 한국과는 반대로 연일 35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기운. 현지시간 10월 14일 오후 7시(한국시간 15일 새벽 12시) 선수 및 관계자, 시민 등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이 열렸다. 제44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여할 57개국 1,200여 명의 선수들이 가득 들어선 개회현장은 선수들의 기대와 의지로 바깥보다 훨씬 뜨거운 열기를 내뿜었다.

본격적인 대회의 시작

올림픽이 진행되는 아드넥(ADNEC) 경기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둘이 한 몸이 된 듯 찰떡궁합을 과시하며 직종 5연패에 성공한 모바일로보틱스 직종 황주혁·황민형 선수, 도면 해석 오류로 재료를 잘못 다듬는 실수를 했지만 특유의 차분함으로 직종 4연패에 성공한 목공 직종 장재연 선수, 우리나라 선수 중 최고득점을 받아 국가 최우수선수에 선정된 기계설계 CAD 직종 서재은 선수 등 많은 이들이 금메달의 영광을 받았다.

그 외에도 냉동기술 직종 채승우 선수, 실내장식 직종 조겸진 선수, IT네트워크시스템 직종 윤성원 선수, 웹디자인 및 개발 직종의 허동욱 선수가 금메달을, 화훼장식 직종의 이건호 선수와 3D디지털게임아트 직종의 김은호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많은 분야에서 기술강국 코리아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국제기능올림픽 폐회식

10월 19일(현지 시간) 오후 UAE 아부다비 두 아레나(DU ARENA) 경기장. 제44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폐회식이 열렸다. 기술인들이라면 전 세계 누구나 꿈꾸는 기능분야의 꽃,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그 아름다운 꽃이 피는 순간이었다. 6일간의 대회 일정동안 선수들은 아부다비라는 낯선 땅 위에서 자신만의 꽃을 피우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다.

시차와 긴 비행시간, 대회에 대한 부담감, 더운 날씨는 지치기 좋은 조건이었다. 하지만 46명의 한국 국가대표선수들은 쟁쟁한 기술강국들 사이에서 치열한 승부를 펼친 끝에 종합 2위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아름다운 승부를 펼친 46명의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 이제 그들을 만나러 가보자. HRD



태극기를 휘날리며 승리를 거머쥔

영광의 얼굴들

선수들의 투혼이 빛났던 국제기능올림픽. 아름다운 결실 뒤에 숨겨진 노력들.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경기를 즐기던 선수들 모두 승리자였다.
대회는 끝났지만 선수들은 계속해서 구슬땀을 흘리며 자신을 단련시키며 성장할 것이다.
뜨거웠던 이날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들의 아름다운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우연한 선택이 삶의 방향을 바꿀 때가 있다.
화학과에 다니던 화훼장식 직종 이건호 선수가 화훼에 빠져든 것도 그것.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뛰어든 만큼 실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
대회를 3일 앞두고 고된 연습으로 손가락을 다쳤지만 포기하지 않고 부상투혼을 발휘했다.

W O R L D S K I L L S A B U D H A B I 2 0 1 7

금메달을 획득한 목공직종의 장재연 선수의 저력은 위기를 이겨내는 배짱이었다.
대회 도중 도면 해석 오류로 재료를 잘못 다듬었지만 특유의 차분함으로 과제를 풀어나갔다.
실수를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것, 노력하는 그가 자랑스러운 순간이었다.




미장 김수현


냉동기술 최승우


타일 김정섭


프로토타입모델링 정현욱


금형 김나래


공업전자기기 신인범


3D디지털게임아트 김은호


기계설계CAD 서재은



14년 만에 탈환한 금메달, 국가최우수선수 선정.
감동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낸 기계설계CAD 직종의 서재은 선수는
자신만의 기술을 만들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이 길로 들어서게 됐다.
역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다는 것, 그것이 서재은 선수가 유독 빛나는 이유였다.

WORLDSKILLS ABU DHABI 2017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했던가.
국가대표 선발전 판금 직종에서 아쉽게 탈락의 고배를 마신 조성용 선수는
심기일전하여 배관 직종에 다시 도전, 철골구조물 직종의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게 됐다.
당일 공개된 과제에서 출제된 어려운 문제와 해석 오류로 경기 내내 고생을 했지만,
힘들게 잡은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했다.





올림픽이 감격스러운 이유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 노력한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 여성 선수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왔던 헤어디자인 직종에 참가한 김근택 선수는 손끝의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만 잠을 자가며 연습에 매진했다.

의상디자인 직종의 경우 문제 출제 방식이 일부 선(先) 공개에서 당일 공개로 바뀌었다. 어떤 과제가 나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전 과제를 모두 동일하게 연습해야 하는 상황.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문상의 선수는 대회 직전까지 최선을 다해 우수상을 거머쥐었다.





3D디지털게임아트 직종은 지난 2016년 10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채택된 시범직종이다. 3D디지털게임아트 직종 국가대표로 선발된 김은호 선수는 '처음'이라는 부담감을 넘어서서 제안국의 자존심을 걸고 열정을 불태웠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일자리를 위한 지혜를 모으다

미래일자리 UCC 공모전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빅데이터, 로봇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기술이 융복합됨에 따라
일자리 분야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미래일자리 UCC 공모전'을 통해
미래일자리를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미래 일자리를 미리 내다보다

제4차 산업혁명 바람이 거세다. 산업의 융복합을 기반으로 한 '초연결사회'에 일어날 일자리 변화와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다보스포럼[1]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2020년까지 선진국에서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러한 4차 산업혁명 대비 일자리를 탐색하는 UCC 공모전을 개최하여 미래 일자리분야를 미리 내다보았다. 7월 14일(금)부터 8월 31일(목)까지 7주간에 걸쳐 진행된 공모전에는 새로운 일자리 변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직업능력 개발 등 다양한 내용의 영상콘텐츠들이 응모됐다.

창의성, 적합성, 유익성, 심미성을 기준으로 한 발표심사(70%)와 시상식 당일 현장에 참석한 청중을 대상으로 한 현장평가(30%)를 거쳐 선정된 7편의 응모작들. '미래'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 우려를 각양각색으로 풀어내 많은 호평을 받았다.

나의 능력이 일자리가 된다

금상(1위)은 오상우 씨의 '미래의 일자리는 일자립' 영상이 차지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자리에 맞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일자리'라면 미래의 일자리는 나의 능력이 곧 일자리가 되는 '일 자립'이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직업능력 향상을 강조한 이 작품은 발표심사, 현장심사에서 모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른 수상작들에도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일자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녹아 있다. 특히 은상 수상작들은 미래에 유망한 직종들을 제시하고 있어 눈에 띈다. 먼저, '시니어이펙트!'는 고령화에 따라 미래에는 시니어 세대와 관련한 직종이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으며, 또 다른 수상작 '당신이 잊고 싶은 과거를 지워드립니다'는 인터넷 상의 잊고 싶은 과거나 개인정보를 지워주는 'Deleter'라는 직업을 소개했다.

이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고민', 'Just grab it', '4차 산업혁명!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다', 'My Dream is' 등 불안한 미래 일자리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영상들이 동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가속화되는 일자리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희망이다. '미래일자리 UCC 공모전'은 미래로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었다. HRD

1) 저명한 기업인·정치인·경제학자·저널리스트 등이 세계 경제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모이는 세계경제포럼(WEF·World Economy Forum)



주변에서 중심으로,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

글 **이은혜**
2016 청년취업아카데미 수기공모전 장려상

문과 출신으로 공대에 입학한 나는 졸업 후 무엇을 해야 할지 항상 고민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검색해봤지만,
거기에는 상향평준화된 취업 준비생들의 스펙 얘기와 '도전하라'는 추상적인 말뿐이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나 역시 토익 공부와 자격증 공부로 시간을 할애했고,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고민은 점점 잊혀져갔다.

청년취업아카데미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꿈을 찾기 위한 도전, 청년취업아카데미

막연한 취업 준비로 4학년 2학기를 마무리하던 중 청년취업아카데미를 알게 됐다. 350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만큼 부담도 많았다. 하지만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었다. 좋아하는 일을 고민하다 보니 평소 관심이 많았던 중국이 떠올랐다. 중국을 직업과 연결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계기로 '청년취업아카데미 글로벌 비즈니스 해외영업 전문가 과정'에 도전하게 되었다.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2015년 겨울, 교육이 시작됐다.

수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3개월 동안 진행됐다. 각 분야의 실무자들, 각 산업의 전문가들과 대기업의 인사담당자분들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수업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갖추어야 할 역량과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우리가 준비해야 할 직무능력들까지 자세히 배울 수 있었다. 해외영업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수업에 더욱 열심히 임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강사님 혹은 컨설턴트분들을 찾아가 차근차근 나만의 진로계획을 세워나갔다.

꿈을 이루기 위한 끝없는 노력

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취업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막연하게 아무 기업에나 지원했던 지난날을 반성하며 산업군과 직군에 대한 정보를 먼저 수집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기업들을 조사해 나갔다. 방향을 설정하고 보니 목표가 생겼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백 번 자기소개서를 고쳐 쓰며 시간을 보냈다. 이전과는 달랐다. 하고자 하는 일도 있었고 목표도 뚜렷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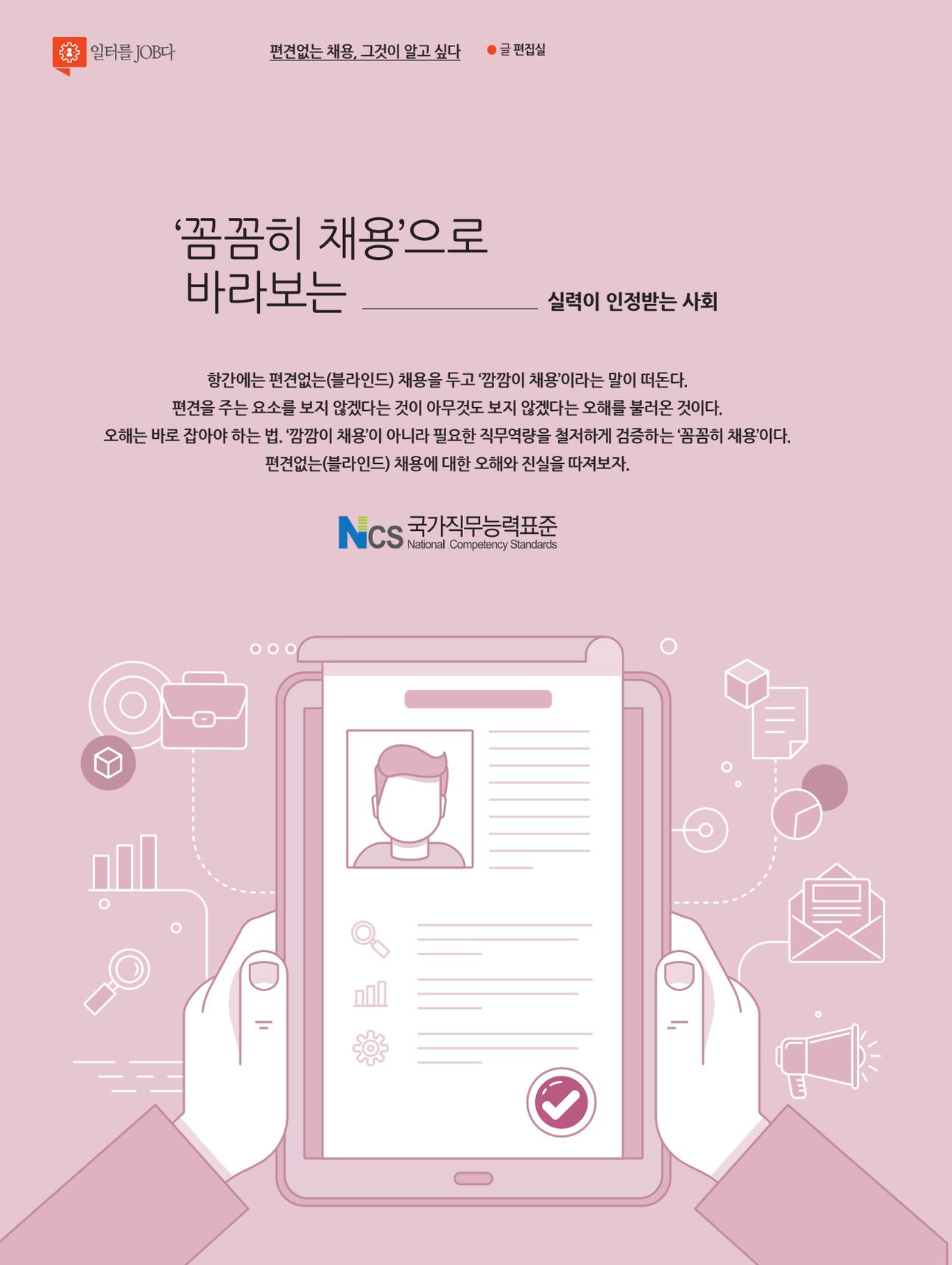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철저히 준비하여 원하는 기업에 입사지원을 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길 며칠, 기업으로부터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 왔다. 학부생 시절의 나는 발표가 자신 없어 늘 팀원들에게 넘기기 바빴던 학생이었다. 하지만 아카데미에서 매일같이 각종 주제의 발표를 연습하다보니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이 점점 즐거워졌다. 준비했던 대로 실제 면접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나의 열정을 어필했다. 결과는 운이 좋게도 첫 면접에서 바로 합격이었다.

'취업아카데미'이지만 가만히 앉아서 수업만 듣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중심을 찾기 위해 행동해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이었고, 그 길을 찾기 위한 환경을 제공해준 것이 청년취업아카데미였다. 환경이 제공됐을 때 내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았다면 그 긴 시간은 놓쳐버린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이제 나는 학생 신분을 벗어나 사회인으로서의 중심을 찾기 위해 또 다시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늘 학생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주신 청년취업아카데미 담당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HRD

‘꼼꼼히 채용’으로 바라보는 실력이 인정받는 사회

**항간에는 편견없는(블라인드) 채용을 두고 ‘깜깜이 채용’이라는 말이 떠돈다.
편견을 주는 요소를 보지 않겠다는 것이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는 오해를 불러온 것이다.
오해는 바로 잡아야 하는 법. ‘깜깜이 채용’이 아니라 필요한 직무역량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꼼꼼히 채용’이다.
편견없는(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따져보자.**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지식과 기술은 그대로, 스펙만 걷어낸다

지난 9월 23일 한국직업방송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에서는 ‘편견없는 채용 블라인드 채용’을 주제로 다뤄 편견없는(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오해를 해소시켜 주었다. 편견없는(블라인드) 채용은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막고 실력만으로 지원자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공감을 얻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역차별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입시 과정을 거쳐 얻은 학력과 어학점수 등 스펙들이 쓸모없어졌다는 우려 탓이다.

지역인재할당제에 대한 지적도 있다. 지역인재할당제는 신규직원 채용 시 30% 이상을 소재 지역의 대학과 고교 졸업자로 채우는 제도다. 그런데 편견없는(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출신지를 기입하지 않으니 지역인재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든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김진실 한국산업인력공단 블라인드채용확산지원단 부단장은 “편견없는(블라인드) 채용의 원칙은 편견이 될 만한 요소를 제외하는 것이지, 그동안 노력했던 지식과 기술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지역인재채용은 특수한 경우로, 원서 접수에서 지역인재 해당 여부를 별도로 표기하게 하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역을 확인한다.”고 설명한다.

취업준비생,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은?

현재 공공부문은 편견없는(블라인드) 채용이 의무화되었고 민간기업에도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이제 취업준비생이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은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이다.

직무능력을 준비하기에 앞서 취업준비생들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우선 제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평가내용과 프로세스는 같으나 기업마다 서류나 면접에서 적용하는 유형이 다를 수 있어 이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참고로 지원자의 인성이 실제 행동으로 드러나는 직업기초능력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같이 준비하자.

편견없는(블라인드) 채용의 유형

채용단계	유형	주요 내용
서류전형	무서류전형	채용절차 진행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을 포함한 입사지원서를 접수하지만 선발기준으로 활용하지 않는 방식
	블라인드 지원서	입사지원서 내 최소한의 정보만 선발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식
면접전형	블라인드 면접	면접관의 인지적 편향을 유발할 수 있는 항목을 제거한 자료를 기반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
	블라인드 오디션	면접이 아닌 실제 작업표본, 시뮬레이션 등을 수행하는 오디션을 통해 지원자의 능력과 기술을 평가하는 방식

편견없는(블라인드) 채용은 ‘어떠한 결과를 이뤄냈나’ 보다 ‘직무와 관련된 능력을 쌓기 위해 어떤 노력과 경험을 했는지’ 그 과정을 중요하게 본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스펙보다는 실력이 인정받는 사회에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해보자. HRD



한류로 빛나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야경

나는 음식점에 가면 맛있는 음식보다 안 먹어본 음식을 고르는 아이였다. 버스도 다니지 않던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내게는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 대학에 와서도 그 갈증은 계속됐고, 더 넓은 세상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다. 영화학과를 복수전공하며 영상제작을 배우던 내게 마침 그에 걸맞은 기회가 왔다. 바로 한국문화정보원의 '해외문화PD 사업'이었다.

K-MOVE

나에게는 낯선 헝가리, 그들에게는 익숙한 한국

해외문화PD의 주 업무는 해외 현지에서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을 취재하고 한류 확산을 위한 문화·기획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다. 사실 과제 영상을 제작하고 영어 면접을 볼 때까지만 해도 내가 외국에서 일하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쟁쟁한 지원자들이 넘쳐나는 데다 영어실력도 그리 유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선 기대는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무척 놀랐다. 다시금 되짚어 보니 합격할 수 있었던 건 면접장에서 어필했던 친화력과 간절함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다. 친화력은 열린 마음, 간절함은 꼭 하고 싶다는 마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일 테니 말이다. 오히려 합격 소식보다 더 놀라움을 준 것은 헝가리로 가게 된다는 소식이었다. 한국과 헝가리는 2013년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었다고 한다. 사실 헝가리에 대해서는 부다페스트의 아름다운 야경 정도만 알고 있었다. 나에게는 이렇듯 낯설었지만 헝가리인들에게는 이미 한국이 익숙한 듯했다. 근무지였던 부다 지역에 위치한 한국문화원은 한국 문화를 찾는 헝가리인들로 연일 북적이고 있었다. 매일 한식, 서예, 동양화 등의 문화 강좌가 열렸고, 특히 한국어 강좌는 인기가 많아서 등록이 어려울 정도였다.

이곳에서 나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며 한류를 더욱 실감했다. 가야금연주단 '민들레'의 단장 레나타는 엘테대학교에서 한국어학을 전공하며 한국 아이돌의 팬클럽 회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배우기 시작한 가야금으로 언젠가 좋아하는 아이돌 노래를 연주하고 싶다는 레나타. 문화콘텐츠가 국경과 언어를 넘어 사람들의 삶을 다채롭게 만들고 있었다. 그전까지만 해도 내가 만든 콘텐츠를 외국의 다른 누군가가 볼 것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었기에, 이는 '세계의 확장'과도 같았다.

무지의 장막, 두려움 걷어내기

항상 쉬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헝가리에 도착했을 때, 시리아 난민 문제가 불거지고 있었다. 뉴스 보도를 위해 도착하자마자 급히 난민 취재에 나섰다. 카메라를 들고 부다페스트의 켈레티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역을 개방해 달라는 난민들의 시위가 한창이었다. 나를 보고 신기한 듯 훑는 시선도, 내게 조롱 섞인 투로 뜻 모를 단어를 외치는 것도 두려웠다. 나는 완전한 이방인이었다. 그러나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보다는 '해내야 한다!'는 확신을 계속해서 되뇌었다.

경찰과 난민의 대치가 극으로 치달아 시야 확보조차 어려워지자 나는 두려움도 잊은 채 벽을 기어올랐다. 난민과 경찰의 대치 전경을 촬영하기 위해서였다. 그때였다. 난간을 붙잡고 촬영하던 내게 한 헝가리 기자가 자신이 가져온 사다리를 쓰겠냐고 물었다. 나는 '꾀쏘뇜(고맙습니다)'을 연거푸 외치며 냉큼 사다리에 올라가 촬영을 시작했다. 덕분에 역 광장의 전경을 확실하게 담을 수 있었다.

2박 3일간 촬영하는 나를 보고 수고가 많다며 먼저 인사를 건네는 시민들도 있었다. 하나둘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무지의 장막을 걷어내자 서서히 두려움이 사라졌다. 용기 내어 나를 경계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갔다. 무릎을 구부려 눈높이를 낮추고 나를 의심스럽게 훑는 눈동자에 미소로 답했다. 그러자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던 인터뷰이도, 카메라를 피하던 난민들도 차츰 경계를 풀어갔다. 그리고 이틀 후, 내가 찍은 영상이 KBS 9시 뉴스에 나왔다. 현장에서의 72시간이 3분 남짓한 뉴스에 담겨있는 것을 보니 묘한 기분이었다. 현장의 생생함이 잘 담긴 좋은 현장르포라는 평을 받았을 때는 큰 보람도 느꼈다.

헝가리에서의 시간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다른 피부색, 국적, 언어. 나의 약점으로 여겨졌던 그것들은 오히려 나만의 방식으로 답을 찾는 열쇠가 되었다. 무지의 장막, 두려움을 걷어낸 헝가리에서 나는 꿈을 넓힐 수 있었다. 훗날, 내가 만든 콘텐츠로 부다페스트의 아름다운 야경을 더욱 빛낼 날을 꿈꾼다. HRD

글_ **채송이**
K-Move 해외진출 성공 수기·사진 공모전 수기 분야 장려상 수상자

TV WORK NET

IT의 핵심, AR/VR
직무관련 이야기

기획의도 직업방송 프로그램이 알려주는 능력개발 노하우 소개

방송시간 매주 월~금요일, 13:00~1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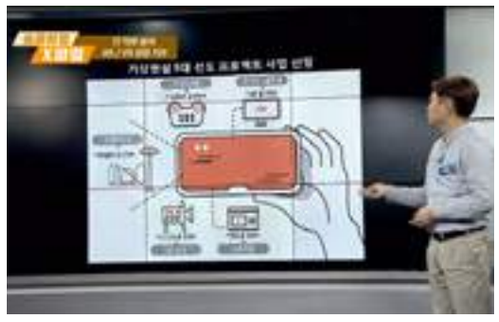


지난해 인공지능 대 인간, 로봇 알파고(AlphaGo)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결이 큰 화제를 일으켰다. 이러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의 기술 발전이 우리 삶에 가져다줄 변화는 무엇일까. 한국직업방송 '직무특강 성공취업 X-File'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새롭게 창출된 기술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는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과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구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증강현실은 한창 인기를 끌었던 '포켓몬 GO'와 같이 실재와 허구가 혼합된 환경이며, 가상현실은 VR기기를 착용하면 100% 허구의 가상환경이 펼쳐진다는 차이점이 있다. 단순한 오락 기능부터 모의 군사훈련, 의료수술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AR과 VR은 그 활용도가 매우 광범위하여 관련 직무 역시 점점 넓어지고 있다. AR/VR 관련 직무 시장의 동향과 성장가능성 등을 자세하고 낱낱이 파헤쳐보자. HRD





'직무특강 성공취업 X-File' 뒤집어보기
(2017년 9월 19일 방영)

AR/VR 기술은

- 일상생활은 물론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기대
- 인간과 사물, 아이디어 간 소통방식을 바꾸고, 경제 사회 내 생활양식을 변화
- 음성이나 시각으로 원하는 정보를 불러오거나 상호작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차세대 플랫폼으로 성장 가능

AR/VR의 활용 분야

- **게임 엔터테인먼트** 시·공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AR/VR 기술은 몰입감, 현장감이 극대화된 체험형 콘텐츠로 발전
- **사업(설계 제조)** 건설 및 제조현장에서 즉각적인 설계 및 도면 수정 가능
- **의료 항공** 군사 극한 상황에 대비해 안전하고 반복적인 원격(수술, 군사훈련) 업무 가능
- **교육 훈련** 우주탐험, 화학분자 설계 등 추상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교육 대체 가능
- **기업** 직원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새로운 협업 방식 제공 및 고객 마케팅에 활용

AR/VR의 구성 요소 및 생태계

AR/VR은 콘텐츠(Contents)와 서비스 플랫폼(Platform), 네트워크(Network), 디바이스(Device)를 결합한 C-P-N-D 생태계형 산업으로, 사용자가 디바이스(D)를 착용하고, 유·무선 통신망(N)을 통해 앱스토어와 같은 플랫폼(P)에 접속하여 AR/VR 콘텐츠(C)를 이용하는 방식

콘텐츠 사용자가 경험하는 오락, 교육 콘텐츠, 업무용 설계 프로그램 등
- 동향 콘텐츠 시장은 향후 엔터테인먼트 부문을 위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
- 시장 전망 콘텐츠 시장은 2018년 이후 본격적으로 성장해 2020년경에는 규모 면에서 디바이스 시장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

플랫폼 콘텐츠를 제작 개발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플랫폼(기술 플랫폼)과 AR/VR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환경(유통 플랫폼)이 있음
- 동향 플랫폼 부문은 일부 글로벌 기업들의 사업 진출만이 이루어지는 초기 단계 시장

  *해외 : AR/VR 디바이스 제조사 및 게임업체, 검색 엔진 등 기업들의 플랫폼 사업 진출이 이어지고 있음

네트워크 AR/VR 콘텐츠를 송수신하기 위한 데이터 전송 인프라로, 인터넷 통신 서비스와 방송을 통한 영상서비스 등을 포함
- 동향 기업을 주체로 AR/VR 콘텐츠의 원활한 이용이 가능한 네트워크 기술 개발 추진 중
- 시장 전망 대용량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특성상 데이터 처리 기술 고도화 및 광대역 네트워크 확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는 콘텐츠 제공자로서 역할을 할 전망

디바이스 사용자가 AR/VR을 경험하기 위해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기기와 사용자 인터페이스(UX), 영상 촬영기기 등 하드웨어를 포함
- 동향 디바이스는 기술개발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부문으로 현재 AR/VR 시장 성장을 주도
- 시장 전망 C-P-N-D 가치사슬 중 가장 치열한 기술개발 경쟁 양상을 보이며, 다양한 유형과 가격의 디바이스가 시도되는 단계

한국직업방송을 만나는 방법

| TV채널 | Olleh KT 252번, BTV 414번, SKYLIFE 189번, C&M 515번, HCN 425번, T브로드 230번
- 홈페이지 VOD다시보기 / 스마트폰 앱 시청 가능 / 티빙, 에브리온으로 실시간 방송시청
- 세부시청방법 및 지역별 채널번호는 직업방송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공단 직업방송매체팀(052-714-8295)으로 문의

설렘과 낭만으로 인도하는 안내자

여행 가이드

JTBC드라마 더 패키지
(매주 금, 토 오후 11시)



국내든 해외든 여행이 흔해진 시대다.
SNS에서 여행사진이 없는 계정은 낯설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반복되는 일상에서
여행이 주는 설렘은 갑갑한 일상을
재충전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
여행은 현대인에게 있어 점차 중요한
이벤트가 되고 있다.



T R A V E L G U I D E

요즘 여행을 매개로 한 프로그램이 많다. 다양한 먹거리가 있는 미식여행, 일상을 탈출하는 힐링여행, 패키지여행을 주제로 한 예능까지, 그야말로 '여행을 권하는 TV'다. 이러한 TV 속 프로그램 덕분일까. TV에 등장한 장소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이 실제 여행 수요로 이어지고, 자유여행을 선호하던 20~30대의 패키지여행도 늘고 있다.

그동안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다녀야 하는데다 쓸데없는 쇼핑을 강요한다는 등의 이유로 패키지여행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 여행을 계획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수고를 줄여주고 가이드와 함께 생소한 장소를 편하고 안전하게 둘러볼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패키지여행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승세 가운데 패키지여행과 여행 가이드를 소재로 해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다.

JTBC드라마 '더 패키지'는 패키지여행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리면서 여행의 리얼함과 진솔함을 담아내고 있다. 극중 이연희는 프랑스 유학 중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여행 가이드가 직업이 되어버린 여주인공 '윤소소' 역으로 출연, 여행객들을 능수능란하게 통솔하는 프로페셔널한 가이드의 모습부터 실연의 상처에 아파하는 여인의 모습까지, 다채로운 면모를 보여준다.

드라마에는 윤소소(이연희)가 몽마르뜨 언덕, 오베르, 몽생미셸 등 관광지에 얽힌 역사적 배경과 스토리를 막힘없이 설명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렇듯 여행 가이드는 현지에 대한 배경지식이 뛰어나야 하며 능숙한 언어 실력으로 여행객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배우 이연희 씨는 입시 공부하듯 불어를 익혔다고 할 정도다.

하지만 해외여행객 2,000만 시대인 지금, 관광객 수에 비해 가이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에 따라 일부 여행업체에서는 역사적, 언어적 지식도 없는 무자격 가이드를 채용하여 정보 왜곡, 바가지 쇼핑 등 심각한 폐해를 만들고 있다. 이를 근절하고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경력과 인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자격과 연수프로그램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자격시험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이다. '관광통역안내사'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경력단절을 겪고 있는 이들의 새로운 꿈이자 기발한 콘텐츠로 무장한 청년들의 관광업계 진출 관문이 되고 있다.

패키지여행을 이끌며 낯선 사람들과 깊은 인연을 쌓아가는 여행 가이드는 매력적인 직업임에 틀림없다. 고객의 입장에서도 좋은 가이드를 만나는 것은 여행 내내 좋은 날씨를 만나는 것만큼이나 엄청난 행운이다. 단순히 여행일정의 안내자가 아니라, 낭만과 즐거운 추억까지 선사하는 여행 가이드는 여행을 더욱 더 풍요롭게 만드는 옵션이다. HRD



식사 하셨어요?

직장인 점심시간 활용법

**바쁜 직장인이라면 안다.
점심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1시간 남짓의 점심시간은 단순히
식사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다.
시간도 의미를 가진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가지는
1시간은 어떤 날엔 휴식이 되고,
여유가 되고, 즐거움이 된다.**

삶과 일 사이에서 균형을 찾다, 워라밸

얼마 전 tvN 예능프로그램 '알쓸신잡'에서 행복에 관한 주제로 '워라밸'이 언급됐다. 워라밸은 일과 삶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간다는 뜻으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Work and Life Balance)의 약자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일과 생활이 균형적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대한민국 다함께 워라밸 국민 참여 캠페인'을 진행, 오래 일하지 않기·똑똑하게 일하기·제대로 쉬기 릴레이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다.

퇴근을 한 후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바쁜 일과 속에서 '칼퇴'는 꿈같은 일. 이것이 바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더욱 주목하는 이유다. 식사시간에 문화생활을 가미해 업무 중에 받는 스트레스를 반감시키는 것.

겨우 하루에 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하루를 기준으로 보면 한 시간에 불과하지만 일주일이면 5시간, 1년이면 무려 240여 시간이 된다. 무엇보다 잠깐의 여유로 하루의 행복을 얻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은가.

행복을 위해 갖는 나만의 시간

잦은 야근과 밀려드는 업무. 잠은 자도 자도 부족하고, 피로는 점점 쌓인다.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에게 점심시간은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달콤한 선물이다. 그리하여 나온 말이 패스트 힐링(Fast Healing)이다. 짧은 시간에 취하는 휴식을 뜻하는 패스트 힐링은 수면, 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누릴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에는 낮잠 카페들이 속속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낮잠 카페는 소파, 안마의자, 침대 등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적화된 공간을 만들어놓은 곳이다. 이곳에서 짧게 낮잠을 자며 오후 일과를 수행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더불어 만화를 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만화카페도 인기를 끌고 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을 즐기는 이들도 많다. 그들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전용 수업을 제공하고 있는 헬스클럽도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상태. 특히 점심시간에 직장 주변은 산책하는 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하는데, 이렇듯 짬을 내 걷기 운동을 즐기는 직장인을 의미하는 워런치(walunch)[1]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한편 어떤 이들은 취미생활이나 자기계발에 주력하기도 한다. 독서를 하거나 인근 미술관의 전시를 관람하는 것. 또, 잠깐 짬을 내 외국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직장인들의 수요에 맞추어 점심 특강을 진행하는 어학원도 많다.

현재를 알차게 보내기 위한 원동력으로, 미래를 준비하려는 노력으로 보내는 소중한 1시간. 바쁜 일상을 보내는 중에서도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가는 모든 직장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HRD

1) 워킹(Walking)과 런치(Lunch)의 합성어

걷다 멈추다 마주하다

충남 아산시
곡교천변 은행나무길에서
공세리 성당까지

길의 시작점에 서면 노란 하늘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은행나무들이 틈 없이 서로의 몸에 바짝 기댄 덕분이다. 샛노랗게 빛나는 풍경에 눈이 시릴 때쯤 들어선 길에서는 어느 카페의 커피향이 반긴다. 냄새에 취해 몇 걸음 더 걸어가는 발끝에 바짝 마른 낙엽이 걸려 부서지는 소리가 귓가를 매만지고, 바람을 타고 낙하하는 은행잎 한 장이 손끝을 스친다. 곡교천변 은행나무길에서는 이 계절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사진 제공_아산시청

걷다 _____ 곡교천변 은행나무길

곡교천변 은행나무길의 기준이 되는 곡교천은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원덕리에서 시작해 아산시 인주면 대응리 삽교천으로 들어가는 제1지류이다. 1966년에 시작된 현충사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1973년 하천을 따라 은행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이 지금의 곡교천변 은행나무길이 되었다. 충무교에서 현충사까지 완만하게 커브를 그리는 도로 양 옆에 350여 그루의 은행나무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따로 또 같이 서 있다.

나이 오십이 훌쩍 넘은 키 큰 나무들이 촘촘하게 늘어선 풍경만으로도 장관이지만, 이 길의 진가는 이름처럼 은행잎이 물들 때 나타난다. 샛노랗게 단장한 나무들이 노란 천장을 만들고, 떨어진 낙엽들로 푹신한 양탄자를 바닥에 깔아 특별한 장면을 연출하기 때문이다. 저 멀리 길 끝에 다다라야 겨우 파란 하늘이 한 점 보일까. 온통 노랗게 칠해진 터널은 그 자체로 가을과 같아서 길을 걷다 보면 계절의 한 가운데를 통과하는 기분이 든다. 이것이 '전국의 아름다운 10대 가로수 길',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되고, '제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의 '아름다운 거리 숲' 부문을 수상한 이유가 아닐까.

2013년부터는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있어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볼 수 있는 것도 이 길의 매력이다. 2016년 9월부터는 자전거 대여소도 운영하고 있다. 생활용MTB, 아동용, 커플자전거 등 200여 대의 자전거가 기다리고 있으니, 바퀴가 굴러가는 틈바구니로 도르르 구르는 나뭇잎들의 재롱이 보고 싶다면 14km에 이르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따라 신나게 라이딩을 즐겨보자.











멈추다 현충사

은행나무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풍경과 이어지는 길 끝에 만나는 곳. 사적 제155호의 현충사다. 이곳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의 영정을 모신 사당으로, 장군이 실력을 기르던 장소이기도 하다. 그러한 역사적 의미도 많은 이들이 현충사를 찾는 이유지만, 가을의 절경도 현충사의 명성에 한몫한다.

진입로에 들어서자마자 빽빽하게 들어찬 은행나무들이 곡교천변 은행나무들과 자신들 중 누가 더 반짝이느냐 묻는다. 귀한 손님이 된 기분으로 '옐로카펫'을 걷다 보면 2011년 개관한 충무공이순신기념관이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의 활약을 담고 있는 곳으로 가을과 역사를 한눈에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이순신 장군의 애국심을 가슴에 안고 정문인 충무문을 넘으면 붉은 단풍으로 둘러싸인 정려[1]를 비롯해 이순신 장군이 활을 쏘던 활터, 그 후손까지 대대로 살던 충무공 고택까지 곳곳에 묻은 장군의 흔적을 더듬어볼 수 있다.

묵묵히 실력을 길렀을 장군의 기합소리를 배경으로 저 멀리 현충사가 시야에 들어온다. 반가운 마음에 경내를 한달음 달려가고 싶겠지만 잠깐 거리를 둔 채 고개를 들고 멈추어 서자. 온 색채를 품은 듯 푸르렀다가, 붉었다가, 노르스름했다가, 결국엔 빛이 나는 잎들을 한 아름 두른 채 투명하게 높은 하늘을 머리에 인 장관과 마주할 테니. 오랜 세월을 품고서도 바래지 않은 이순신의 마음과 풍부한 색의 계절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다.

1) 충신, 효자, 열녀에게 임금이 내린 편액을 마을 입구에 걸어놓는 것을 말함. 이 충무공과 그 후손 등 다섯 분의 충신, 효자 편액이 걸려 있다.

마주하다 외암리 민속마을과 공세리 성당

은행나무길과 현충사를 나와 조금만 발걸음을 재촉하면 또 다른 가을을 만날 수 있다. 황금빛으로 물든 외암리 민속마을과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공세리 성당이다.

중요민속문화재 236호인 외암리 민속마을은 조선후기 성리학자 외암 이간 선생이 살던 곳이다. 실제 거주 중인 주민들에 누가 될까 조심스레 마을로 들어서면 넓게 펼쳐진 금빛 논이 시야를 탁 트이게 한다. 그 사이 초가와 기와집이 옹기종기 모인 풍경이 소박한 멋을 낸다. 이곳에서는 시간을 들여 마을을 둘러싼 돌담길을 걸어보는 게 좋다. 지붕, 담벼락, 나무 여기저기 묻어 있는 가을을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외암리 민속마을에서 차를 타고 가다보면 공세리 성당이 보인다. 1890년 문을 연 성당에서는 그 오래된 역사를 차곡차곡 몸에 품은 거목들이 먼저 눈에 띈다. 국가보호수를 비롯한 나무들이 350여 년이란 긴 세월 동안 담담하게 자리를 지키고 앉은 모습이 가을의 고요함을 느끼게 한다. 특히 갈색과 회색빛 벽돌로 정교하게 빚어진 성당은 그 자체로 하나의 볼거리가 되어 준다. 지나 온 세월의 두께만큼 넉넉한 인심으로 품어주는 공간에서 느긋한 여유 속에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떨까.

걷다가,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걷기 좋은 날.
충남 아산의 곡교천변 은행나무길에서 시작해
공세리 성당까지,
계절을 만나러 가자. HRD







왼쪽부터 최다은, 박성준, 권기쁨, 손정

한 판, 놀아볼까요?

충북지사 멘토-멘티는 보드게임 중!

어린 시절, 친구, 친척들과 모여 게임을 즐기던 시간을 기억하는지. 하늘 높이 던진 주사위 하나에 왁자지껄했던 기억들. 게임은 시대와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이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힘을 가졌다. 충북지사 멘토-멘티들이 한 판 놀기 위해 모였다. 준비물은 신나게 즐길 웃음과 열린 마음뿐!

보드게임의 고전, 젠가! 다 함께 놀자!

탑처럼 쌓여 있는 블록 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낸다. 섬세한 손길을 따라 빠져나오는 블록. 대단하다는 탄성이 쏟아진 것도 잠깐, 흔들거리는 탑 제일 위층에 쌓인 블록의 존재감에 이내 침묵이 찾아든다. 식곤증이 몰려오는 오후 2시, 충북지사 멘토-멘티들이 승부를 가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게임 종목은 보드게임의 고전으로 꼽히는 젠가. 멘토-멘티들은 두 팔을 걷어붙이고 총력을 다했다. 재미도 재미였지만 특유의 성격들이 묻어나오는 것을 보고 모두 놀랐다는 후문이다. 평소 책임감이 강해 멘토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권기쁨 과장은 고민하는 손정 대리에게 팁을 알려줬고, 차분하게 업무에 임하는 최다은 대리는 젠가 역시 조용히 살펴본 후 망설임 없이 슥하고 뽑아냈다. 손정 대리는 분위기메이커 역할을 담당하며 시종일관 밝은 웃음을 터뜨렸고, 박성준 대리도 체계적으로 일하는 강점을 발휘, 젠가에서도 꼼꼼한 분석력을 보여줬다. 충북지사라는 하나의 틀 속에서 같은 가치를 가진 이들이 걸어간다. 웃음이 가득하던 오후 2시의 기억. '함께'이기 때문에 충북지사 멘토-멘티들은 오늘도 더 큰 힘을 낸다. HRD





지역일학습지원팀
권기쁨 과장

업무를 함께하면서 알게 된 성격들이 간단한 게임에도 묻어나오는 것 같아 신기했어요.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끼리 가끔 사다리 게임을 해서 간식을 사먹곤 하는데, 앞으로 젠가도 활용해보려고요.

지역일학습지원팀
손정 대리



초등학교 이후로 이런 게임을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 룰을 물어봐야 했을 정도로 기억이 안 나서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직장 동료라는 관계 범위를 넘어선 시간이었어요. 소중한 추억이 된 것 같아요!



지역일학습지원팀
박성준 대리

사실 업무 외에 동료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회식과 같은 술자리밖에 없었는데, 게임을 함께하니 새롭기도 하고 재미도 있었어요. 게임을 통해 소통하는 자리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달 사보가 나오면 한 권 소장해야겠어요. 잊지못할 추억이니까요~

직업능력개발팀
최다은 대리



친구들과는 해본 적이 있지만 동료들과는 처음이었어요. 더 친해진 계기를 맞이한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 사적인 부분에서 접점을 찾기가 힘들거든요. 업무도 잠시 잊고 열심히 했어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추억도 쌓고 또 좀 더 가까워지고, 일석삼조의 시간이었어요.



달려라, 세상 끝까지

나는 어렸을 적부터 마른 체형이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몸무게가 갑자기 늘었던 적도, 크게 줄었던 적도 없어서 줄곧 일정한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내 몸무게는 그대로일 것만 같았다. 하지만 서른을 넘어서자 이상하리만치 아랫배에만 세월의 무게가 쌓여갔다. 무게가 쌓이는 만큼 체력도 함께 줄어들었다. 더 이상은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어 운동을 시작하기로 다짐했다. 하지만 평소 안하던 운동을 하자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며칠을 고민하다 별다른 장비 없이 두 다리와 운동화 한 켤레만 있으면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달리기, 정확히는 마라톤을 해보자 결심했다.

처음에는 2km만 달려도 숨이 턱까지 차올라 폐가 찢어질 듯 했다. 반환점을 너무 멀리 잡은 것 같다 혹은 오늘은 절반만 달릴까 하는 후회와 고민이 달리는 내내 머릿속을 괴롭혔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고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인데 어렵사리 시작한 운동을 중간에 포기하기는 싫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때로는 아침에 때로는 저녁에 청계천변을 달렸다. 집 밖을 나서기가 힘들지 막상 밖에 나가니 그보다 좋을 수 없었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과 매일 봐도 지겹지 않은 자연의 풍광은 하루 내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주기에 충분했다.

달리기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자 한 번에 달릴 수 있는 거리도 길어졌다. 첫 시작은 4km였다. 처음엔 버거웠던 그 거리가 얼마 뒤엔 숨이 차지 않은 채 달릴 수 있는 정도가 됐다. 목표로 삼은 거리가 수월해지면 조금씩 그를 늘려갔다. 그렇게 거듭하다보니 나중에는 10km를 아무렇지 않게 달리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달리기를 하면서 얻은 것은 어떤 것이든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체력이다. 우선 너무 멀게만 느껴졌던 10km와 하프마라톤(21km)도 계속해서 달리다 보니 되는 것을 보고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체력에 있어서는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 사실 사진으로 보면 달리기를 시작하기 전과 지금의 모습에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스스로 느끼기에 달라진 면이 있다면 이전보다 덜 피곤하고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만약 달리기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출장과 야근 등의 업무를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일주일에 1~2회씩 잊지 않고 달리기를 하고 있다. 다행히 사는 곳 가까이에 태화강 둔치가 있어서 퇴근 후 옷만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달리러 나간다.

2012년부터 시작해 내가 달려온 거리는 벌써 3,560km에 달한다. 한 걸음 한 걸음 달린 것이 어느덧 천 리를 넘은 것이다. 그동안 힘들고 숨찬 걸음도 있었고, 가벼운 걸음도 있었다. 내가 살아온 인생도 그랬다. 힘들어서 멈추고 싶은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고 가다보니 언젠가는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 이를 보면 마라톤은 삶과 참 닮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달려보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다. HRD

글_ **황수영**
직업방송매체팀 전문위원

글 윤윤석 경영학박사 / 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청렴교육강사



청렴韓세상

사회적 자본인

신뢰의 중요성



프랑스 혁명 당시 시민 혁명군이 왕궁을 포위했을 때 국왕 루이 16세와 왕비를 마지막까지 지킨 것은 프랑스 군대가 아니었다. 모든 프랑스 수비대는 도망갔지만 스위스 용병 700여 명은 남의 나라 왕과 왕비를 위해 용맹스럽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했다. 프랑스 시민혁명군이 퇴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스위스 용병들은 그 제의를 거절했다. 당시 전사한 한 용병이 가족에게 보내려던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우리가 신뢰를 잃으면 우리 후손들은 영원히 용병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왕궁을 지키기로 했다.' 오늘날까지 스위스 용병이 로마 교황의 경비를 담당하는 것은 이러한 용병들의 신뢰성 덕분이다. 젊은 용병들이 목숨을 바치며 송금한 돈도 결코 헛되지 않았다. 스위스 은행은 용병들이 송금했던 피값을 목숨을 걸고 지켜냈다. 그 결과 스위스 은행은 안전과 신뢰의 대명사가 되어 이자는 커녕 돈 보관료를 받아 가면서 세계 부호들의 자금을 관리해주는 존재가 되었다.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주변국에 시달리며 비극적인 역사를 이어왔다. 국토의 넓이는 우리나라 경상도와 전라도를 합한 크기로 국토의 75%가 산이며, 자원이라곤 사람 밖에 없다. 150년 전까지만 하여도 최빈국이었던 스위스가 지금은 1인당 GDP가 세계 2위(2016년)인 $78,000의 선진국이 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신앙에 기초를 둔 '신뢰' 덕분이었다.

신뢰(信賴)란 무엇인가? 신뢰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타인의 미래 행동이 자신에게 호의적일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말한다. 우리가 가족을 믿고 친구를 믿고 이웃을 믿는 것은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로버트 퍼트남은 신뢰란, 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로 사회적 자본이라고 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신뢰가 낮은 나라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신뢰지수는 아주 낮다. OECD 사회신뢰도(2016년)에 의하면, '믿을 사람이 없다'(35개국 중 23위), '사법시스템도 못 믿겠다'(34개국 중 33위), '정부도 못 믿겠다'(35개국 중 29위)였다. '미래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국의 청년 응답자들은 무려 79.7%가 '그렇다'고 답했다. 신뢰가 낮은 국가는 이해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일례로 한국에서 노사정 대타협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스스로 부패를 없애는 일이야말로 신뢰를 쌓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한다. 언론은 사실에 입각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하여야 독자들이 신뢰할 것이다. 가짜 뉴스는 걸러야 하며 오보는 반드시 정정 보도를 내보내야 한다. 또한 법과 원칙이 사회를 지배해야 하며, 법은 누구에게나 정의롭고 공정해야 한다. 힘 있는 사람이 법망을 빠져나가고 거리마다 자기의 주장을 외쳐대는 행위는 신뢰를 크게 무너뜨린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의 보츠와나처럼 학생들에게 어릴 때부터 청렴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필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금년과 작년에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수행사업의 영역이 넓어 각기 맡은 바가 다르지만 직원 간에 신뢰성이 높다는 말을 들었다. 이러한 튼튼한 신뢰성이 공단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으로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나라는 자본, 노동과 같은 경제적 자본만으로는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다.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나라 경제가 부강해질 수 있다. HRD

HRD KOREA NEWS



일본취업박람회(WORK IN JAPAN) 개최

공단과 리크루트커리어가 일본 대기업 등 양질의 구인처를 국내 우수 구직자에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한 일본취업박람회(WORK IN JAPAN)가 서울에서 열렸다. 10월 14일부터 15일, 10월 28일부터 29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코엑스와 종각 시그니처 타워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19개의 구인기업과 서류전형을 통과한 구직자 200여 명이 참가했다.



공단-재외동포재단 MOU 체결

지난 10월 27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한상기업 네트워크를 활용, 청년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단-재외동포재단 간 MOU를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공단과 재단은 한국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와 취업박람회 등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우수한상기업을 선정하여 구인수요를 발굴하는 등 협력을 이어가게 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홍보트럭 운영

공단은 9월 28일 여수를 시작으로 전국 농촌, 어촌을 찾아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홍보트럭을 운영하고 있다. 10월 20일에는 울산 정자항 부근 강동위판장에서 커피 한 잔을 나눠주며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설명과 상담을 진행했다. 올해 말까지 공단은 인천, 광주 등 6곳을 추가로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고충 상담 및 안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울산 다문화가정 결혼이주 여성 대상 정보화교육 수료식 개최

공단은 10월 25일 울산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1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 수료식을 가졌다. 공단은 정보화 부서 직원들의 재능기부로 올해 6월 북구를 시작으로 9월 울주군, 10월 남구까지 18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시행, 총 29명의 교육수료생을 배출했다.



'2017 능력중심 소프트웨어(SW) 인재 채용 페스티벌' 개최

공단과 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10월 24일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2017 능력중심 소프트웨어(SW) 인재 채용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중소·중견기업에 역량을 갖춘 인재가 유입되고, SW전공자에게는 불필요한 스펙이 아닌 역량에 맞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행사에는 현장면접 외에도 '일하기 좋은 SW전문기업 시상식'과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도입 13주년 맞은
외국인 고용허가제(EPS)



● 외국인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란?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외국인 고용을 허가해 주는 제도로, 체류 자격은 비전문취업(E-9) 사증입니다.

● 고용허가제 도입 성과

1993년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
- 민간을 통한 인력 송출
- 연수생 신분 악용 외국인력 편법 활용
- 인권침해, 불법체류, 송출비리 등 문제 야기

2004년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도입
- 공공기관을 통한 인력 송출
- 송출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
- 외국인 근로자를 노동법상 국내 근로자와 권익 동등 보장

●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현황

국적별 전체 28만여 명
- 베트남 14.5%
- 캄보디아 14.2%
- 인도네시아 12.2%
- 네팔 11.2%
- 필리핀 9.1%

성별
- 남성 90.9%
- 여성 9.1%

업종별 전체 사업장 수 5만 2000개
- 제조업 84.2%
- 농축산업 9.5%
- 건설업 3.8%
- 어업 2.4%

● 그간의 주요 제도 변경

	2004년		2017년 현재
송출국가	6개국	확대	16개국
업종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3개)	확대	어업, 서비스업 포함 (5개)
취업활동 기간	3년	연장	4년 10개월 + 4년 10개월(조건부) *중간에 3개월, 6개월 출국

HRD KOREA 사람과 일터의 가치를 높여가는 인적자원 개발·평가·활용 지원종합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강윤희 | 인천 연수구

스펙보다 잠재력과 역량을 쌓자

가을이 되면 왠지 억새밭과 갈대밭이 떠오릅니다.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자주 봤던 제주 산굼부리에 꼭 한 번 가보고 싶네요.

이정호 | 충북 청주

인성과 실력을 동시에 꽃 피우는 꽃방울

기술력이 국가력인 지금 특수목적고를 특집으로 다루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 우리 아이들이 진학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 일터 등을 다양하게 소개해주세요.

허윤아 | 부산 강서구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디딤돌

기술이 있으면 그 어떤 장애물도 이길 수 있음을 느낍니다. 기술자들의 행보와 밝은 길을 상세히 알 수 있어 도움이 되네요. 좀 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석상훈 | 경남 김해

너도 나도 윈윈하는 사회

〈직장인 공감칼럼〉을 보고 제 서랍을 확인해봤어요. 항상 비슷한 시간에 허기가 지니 간식을 두고 매일 먹고 있는데, 기사를 보니 이왕이면 건강한 간식을 먹어야겠네요.

왕채연 | 전남 여수

하면 할 수 있다

중3, 고3인 아이를 둔 엄마에게 HRD KOREA는 선생님과 같은 가르침을 줍니다. 학벌이 아닌 실력중심사회 구현에 앞장 서는 너무도 고마운 책자입니다.

〈HRD KOREA〉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이번 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청년 일자리 관련 슬로건 등을 독자엽서 혹은 이메일(kyuri14@hrdkorea.or.kr / 발송인 주소, 연락처 기재)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절취선

우 편 엽 서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6. 5. 1~9999. 4. 30

울산우체국
승인 제40219호

보내는 사람

이 름

주 소

전 화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수집 및 이용 목적 : 엽서 당첨자 공지 및 상품 발송
·수집항목 : 이름, 주소, 전화번호
·보유기간 : 동의 철회 시까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HRD KOREA〉 신규 구독 신청 □
〈HRD KOREA 이메일 뉴스레터〉 신규 수신 신청 □
이메일

HRD KOREA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교동)
한국산업인력공단 홍보실
HRD KOREA 담당자 앞 T. 052) 714-8191

4 4 5 3 8

2017년 11월 국가자격시험 일정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합격자 발표** - 관광통역안내사 1차	2	3 ■**합격자 발표** - 기사 제3회 1차(최종)	4 ■국내여행안내사, 호텔3종 1차 시험 ■수산물품질관리사 2차 시험
5	6	7	8 ■**합격자 발표** - 공인노무사 3차 - 변리사 2차	9	10	11 ■기사 제4회 실기시험 (11.11~11.22) ■한국어교육능력검정 2차 시험(11.11~11.1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 2차 시험
12	13	14	15 ■**합격자 발표** - 세무사 2차	16	17 ■**합격자 발표** - 기술사 제113회(최종)	18 ■경비지도사 1, 2차 시험
19	20	21	22 ■**합격자 발표** - 소방시설관리사 2차 - 손해평가사 2차	23	24 ■**합격자 발표** - 기사 제3회 2차(최종)	25 ■기능사 제4회 실기시험 (11.25~12.8) ■제25회 청소년지도사 2차 시험(11.25~11.26)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시험
26	27	28	29 ■**합격자 발표** - 공인중개사 1, 2차 - 국내여행안내사, 호텔3종 1차 - 청수시설운영관리사 1차 - 한국어교육능력검정 2차 - 행정사 2차	30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큐넷(www.Q-net.or.kr)을 참조하세요.

■ 시험일 ■ 원서접수 일정 ■ 합격자 발표일

- 11월호에 실린 기사 중 가장 만족스럽고 유익했던 내용과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 앞으로 〈HRD KOREA〉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사보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적어주세요.

- 한국산업인력공단, 혹은 이번호 〈HRD KOREA〉에 등장했던 인물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 청년 일자리 관련 '한 줄 슬로건'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세요.(예시_실력중심사회의 디딤돌)

www.hrdkorea.or.kr

실력중심사회의 디딤돌 한국산업인력공단
HRD KOREA 2017.11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으로
당신은 성실납세로
대한민국을 이롭게 합니다

과세는 공평하게, 납세는 성실하게
보다 행복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당신의 성실납세가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성실납세 하는 당신이
대한민국의 영웅

국세청

HRD KOREA

11





사실은 외롭고,
고단한 여정이었을지 모릅니다.
수많은 불안감으로
포기할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력에 대한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어와 마침내 도달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꿈을 가진 당신을 응원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HRD KOREA 한국산업인력공단 2017 11 Vol. 257

실력중심사회의 디딤돌 한국산업인력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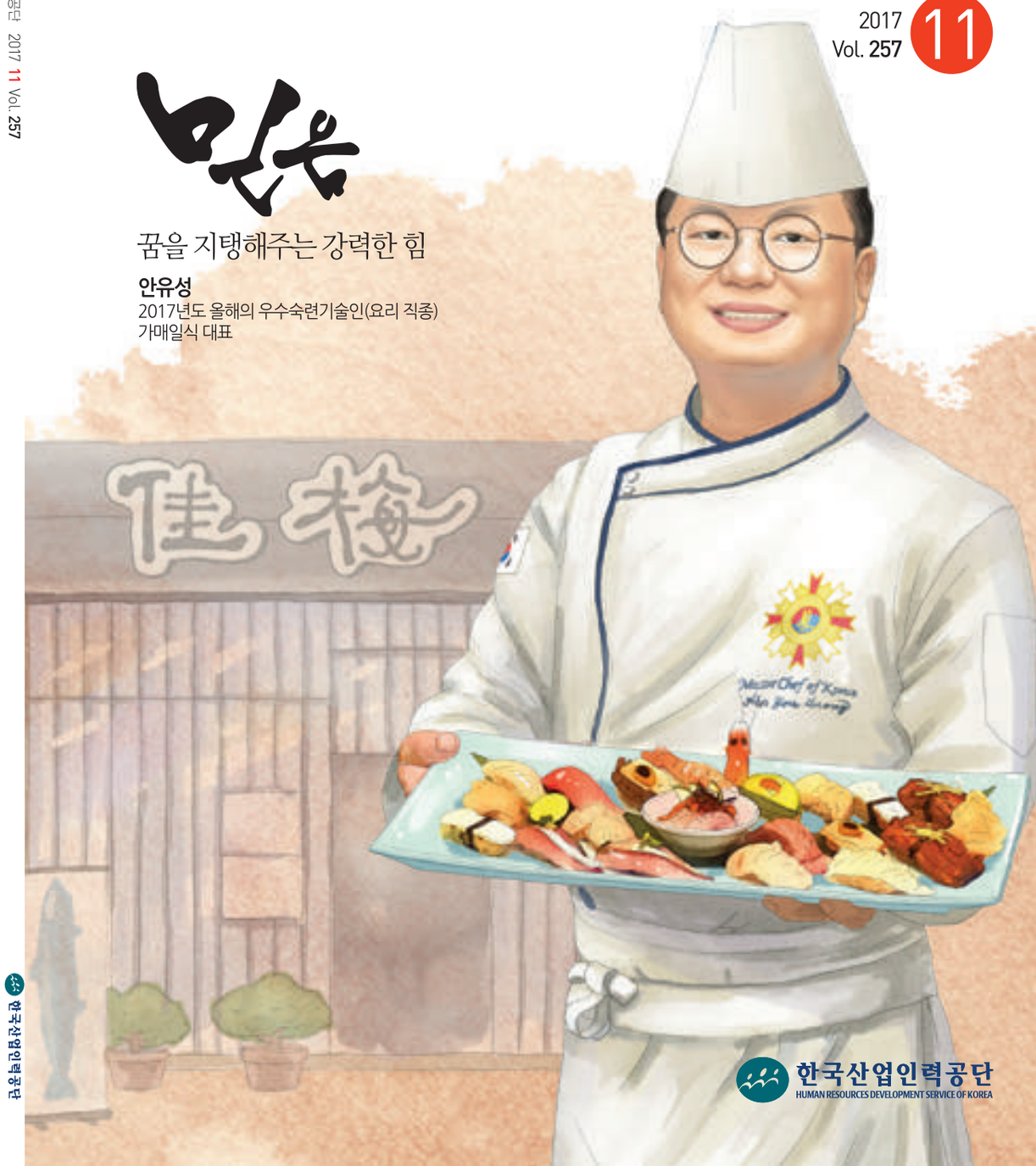
HRD KOREA

2017 Vol. 257 11

믿음

꿈을 지탱해주는 강력한 힘

안유성
2017년도 올해의 우수숙련기술인(요리 직종)
가매일식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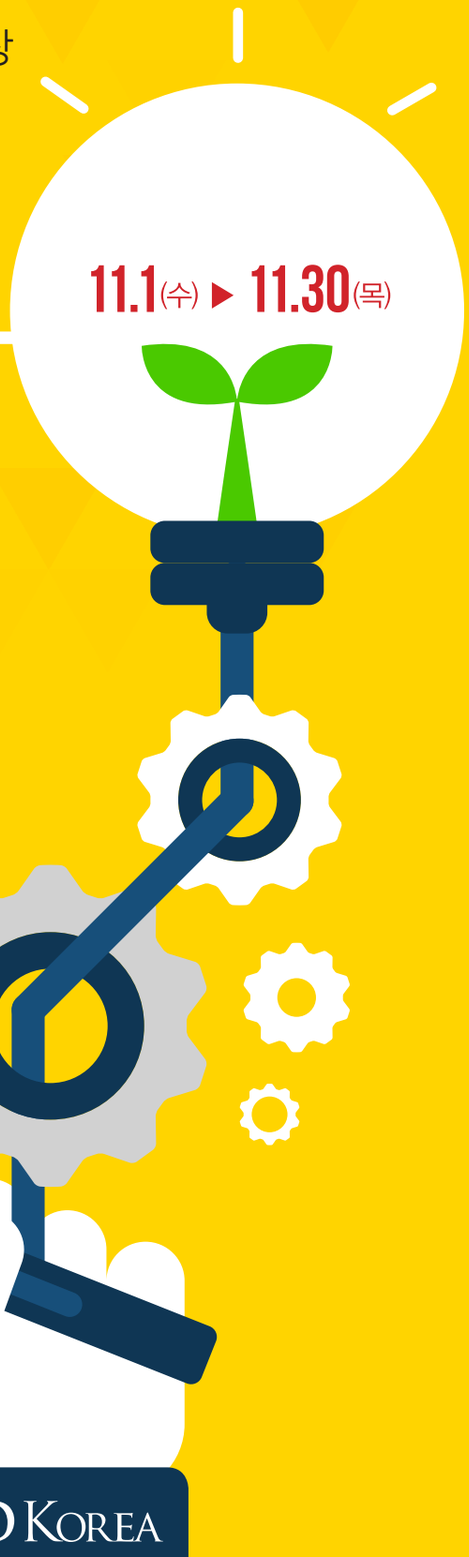
금은동메달리스트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혁신 아이디어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

11.1(수) ▶ **11.30**(목)



공모주제

공단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 사회적 가치 실현이란?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윤리경영, 환경보전, 공정한 기관운영, 지역사회 참여 및 공헌, 인권향상,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들을 고려함으로써 기관과 사회 모두에게 이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

❶ 우리 공단의 사업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창출 방안
ex) 대한민국 명장 등 다양한 분야 전문인의 현장 노하우 전수

❷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공단이 할 수 있는 신규 사업 및 활동
ex) 환경 관리 자격증 신설로 전문 인력 양성, 이를 통한 환경 보전 성과 창출

❸ 지역사회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과 그 방안
ex) 기능경기대회 우승자의 지역 근로자 기술전수

❹ 기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참여대상

만 14세 이상의 국민 누구나

응모방법

신청양식으로 E-mail hrdhsc@hrdkorea.or.kr로 제출
(신청양식 다운로드 :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 소식공간 ➡ 알려드립니다)

포 상

등 급	포상금(원)	인 원	비 고
금 상	1,000,000	1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표창
은 상	500,000	1	
동 상	300,000	2	
장려상	100,000	6	

※ 세부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 소식공간 ➡ 알려드립니다 ➡ "HRD Korea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 안내" 참조

기타 문의 052) **714-8647, 8648**

HRD KOREA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으로

당신은 성실납세로 대한민국을 이롭게 합니다

과세는 공평하게, 납세는 성실하게
보다 행복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당신의 성실납세가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성실납세 하는 당신이 대한민국의 영웅



국세청